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14차시, 바울서신,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바울,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 교리의 정점인 사도 바울의 글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정말 간단히,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고 조금 언급하고 싶습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지만 계속 자랑해야겠습니다. 주님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하느님은 아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립니다. 그는 이 사람이 바울 자신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이 낙원,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세 번째 하늘로 가서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들었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한 명의 기독교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을 의미할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말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들이 얼마나 흔해졌는지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1과 2에 대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전부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들은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지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이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는 티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오, 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15~21.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자 이방인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신약에서 의롭다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거듭거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노력에서 우리도 죄인으로 발견되었다면, 그리스도는 죄의 종이신가요? 물론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리스어로 megenoit a .

내가 허물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자임을 증명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가 율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죽으셨을 것입니다. 문맥상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16절에서 세 번이나 언급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16절에서 믿음의 목표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뢰가 확장되는 개인적 대상입니다. 17절은 로마서 3:24와 함께 바울이 그리스도를 의화와 연결하는 두 곳 중 하나입니다 . 그는 유대교도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죄인이 된다는 비난을 거부하는데, 유대교도들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도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과 교제함으로써 죄인이 된다는 비난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죄의 종이라는 개념(물론 그가 거부하는 개념)과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개념을 대조합니다. 캠벨은 통찰력이 있고,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가 죄를 축진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의롭다함을 얻는 사건에서 행동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가 의롭다함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간주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죄를 축진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에 의한 것에 대한 선호되는 해석은 행위의 개념을 귀속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롭다함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입니다."

바울이 그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즉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더 이상 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십니다.

물론, 저는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저는 율법에 죽었고, 하나님께 살 수 있었습니다. 20절,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죽음에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십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던 옛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시대가 밝았고 모든 신자들은 이제 다가올 시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거한다고 단언합니다. 이 구절은 공동 십자가 처형과 그리스도와 그의 신자들 안에 거하심을 놀랍게 연관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FF 브루스는 20절의 아이디어를 맥락 속에서 포착합니다. 인용문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로의 주권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그와 연합되고, 너무나 긴밀하게 연합되어 그의 경험이 이제 그들의 경험이 됩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옛 질서에 대한 그의 죽음을 공유하고, 율법 아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에서 네 가지, 네 가지, 그리고 그의 부활을 새 생명으로 비교하세요. 그들은 옛 질서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데, 여기에는 19절의 율법도 확실히 포함됩니다. 율법을 통해 나는 율법에 죽었고, 그들은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통과와 놀랍고 따뜻한 연합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갈라디아서 2:20을 암기했는데, 그것은 훌륭한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3:13과 14. 문맥은 10절부터 시작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제 아무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13절을 건너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된 바 ,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문맥상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 실례합니다. 제 눈이 잘못된 곳을 보는 서기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갈라디아서 3:13과 14. 다시 한 번 시도해 봅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을 말하는 맥락에서 저주를 갠 자들은 그 벌을 받을 만합니다.

이 문맥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에 대해 말하고, 저주받은 율법 위반자로부터의 구원은 그 형벌을 받을 만합니다. 바울은 형벌 대속에 대한 강력한 진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 위반자였던 우리가 받을 만한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그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기 위해서입니다.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한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음으로써, 나무에 매달린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율법의 위협, 벌,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13절.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 그 축복은 약속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속하셨고, 13절에서 그것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구약이 보여주듯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4절은 도구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습니다, 14절.

내주하심은 여기서 영을 받음으로 언급됩니다. 갈라디아서 4:6. 입양, 입양 교리는 신약의 여러 곳에서 언급됩니다. 바울서신에서 요한서에도 언급되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2과 요한일서 3:1에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입양에 대한 작은 책을 썼어요. 신에게 입양됨. 하지만 바울이 입양의 신학자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교리를 확장된 맥락에서 공개하는 두 가지 주요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이고, 그 직후에 몇 가지 참조 사항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4:1~6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갈라디아서 3:26에서 4:7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입양 구절인 갈라디아서 4 :6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상속자가 된 것을 기뻐합니다. 갈라디아서 4:4~7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셨고,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으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하심이요, 우리로 아들의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니라. 그리고 아들이 하나님을 통한 상속자라면,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보내어 구속의 일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4, 5절). 바울은 6절에서 많은 놀라운 결과 중 하나를 골라냅니다. 너희가 아들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는 한 절에 나타난다. 아버지는 이전에 아들을 보냈던 것처럼 성령을 보냈다. 성령은 애정을 담아 아들의 영이라고 불린다.

대명사 his의 선행사는 Father's입니다. The Spirit is, 이 성령은 아버지의 아들의 영입니다. 아버지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은 그를 보내신 분을 증거합니다. 그는 우리 마음 속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그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16을 비교해 보세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바는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아기말이 아니고 다다를 뜻하는 것도 아니지만, 팝, 아빠, 대디, 아버지, 이 세상에서 사랑받고 친절한 아버지를 부르는 애정 어린 호칭을 뜻합니다.

바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지칭하는 데 그 용어를 사용했고, 물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22-23, 성령의 위대한 열매 구절입니다. 첫째, 육체의 행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9 이하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경고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에 대하여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면, 우리도 영과 보조를 맞추자.

우리는 교만해져서 서로를 자극하거나 서로를 시기하지 말자.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사실상 최악적인 정욕과 욕망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정의한다(2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비교해 보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십자가로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따라서 좋은 교차 참조는 6:14입니다. 사도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언급합니다. Richard Longenecker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올바르게 주장합니다. Longenecker의 갈라디아서 주석.

이 구절은 육신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합니다. 24절은 이 구절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한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은 그의 이야기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와 함께 그들의 육신으로 죽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악적인 충동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으며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보았듯이 말입니다. 죄악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권세에 굴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불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에 대한 그들의 목졸림을 깨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 건망증에 시달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와 함께 우리의 육신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 룬에네커는 타당하며, 인용하자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은 갈라디아서의 중심 구원론적 주제입니다. 1:4, 3:1, 3:13, 6:12, 6:14를 비교해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새로운 유형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갈라디아서 2:20).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방탕함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함의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4절에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이거나 방탕한 지향을 표현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 율법의 요구와 육신의 충동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동안 율법의 요구와 육신의 충동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로마서 7:1-6, 골로새서 2:13-15, 에베소서 1:7-10을 비교해 보세요. 사실, 에베소서 1:3-14는 그리스어로 긴 문장 하나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수 있는 두 구절을 고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7-10. 그 안에서, 곧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피로 구속을 얻었고, 곧 우리의 허물 사함을 얻었으니, 이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된 것이니, 그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의 뜻의 신비를 그의 목적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 주셨으니, 이는 때가 차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합일시키려는 경륜이니라.

다시 한번 구원을 나타내는 단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결합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얻습니다(7절). 구속은 값을 지불하여 노예를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의 그의 폭력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은 구속, 노예들의 해방, 그리고 우리를 속박했던 "우리의 범죄의 용서"로 이어진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속을 얻는다. 그 안에서 그는 아마도 비유적으로 사용된 위치격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더 이상 영적 속박의 영역에 있지 않으며, 그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언어의 실제 뉘앙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는 주된 용법이 사탄이나 세상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역이나 왕국 또는 영역으로 영역을 옮기는 것인 듯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해 있으며 더 이상 영적 속박의 영역에 있지 않으며, 그의 죽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에 따라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때에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합일시키려는 계획으로 보내신 것이라 말하며 시간적으로나 우주적으로 자신의 관점을 확장합니다. 9절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합일시키려는 그의 계획을 설명하는 것과 함께 사용되었으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와의 합일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했고, 저는 여기서 콘스탄틴 캠벨의 저서에 정말 의존하고 있는데, 그의 책인 바울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모든 언급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기본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12가지의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구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중 일부에 호소해 왔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선택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그중 6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합니다 . 마지막으로 사용된 in him도 위치적 용법으로, 그리스도를 초점이나 목표로 말하는 데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목표로 합치는 것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잘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요약하기로 택하신 분이며, 우주에 조화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단순히 수단, 도구, 또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공무원이 아니라 초점입니다. 그리스도는 수단이며 도구입니다. 저는 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는 중재자입니다.

오, 하지만 그는 또한 목표입니다. 강조점은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재결합된 우주에 있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교리는 거대합니다.

그는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고린도전서 8:6.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그는 섭리의 일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바로 거기, 17절, 바로 거기.

그는 유일한 중보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자 끝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9과 10에서 볼 수 있듯이요. 즉,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창조주, 유지자, 구속자, 완성자, 모든 것의 상속자이십니다. 에베소서 1:11-13.

다시 한번, 이 짝 찬 구절에서 작은 부분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3~14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과 시간 이전의 선택에서 그리스도가 우주의 하나님의 화해의 우주적 목표가 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고 스며 있습니다. 에베소서 1:11~13.

그 안에서, 그것은 다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행하시는 그의 목적에 따라 예정되어 기업을 얻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둔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양이 될 때까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기업을 받았고, 우리는 기업을 얻었으니,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을 얻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위치적 의미로, 비유적으로 사용되어, 목표를 좁히기 위해 영역이나 영역을 보여줍니다. 이전 구절에서 목표는 모든 것,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초점을 신자들에게 좁힙니다.

믿는 자의 유업은 새 땅의 온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든 아폴로든 세상의 게바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21, 22,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가 목표이고, 우주가 구속의 목표이며, 그리스도가 그 초점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납니다.

이제 그는 그보다 더 작은 집합으로 가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상속을 가지고 있고, 상속은 삼위일체와 새 땅입니다. 와우.

사도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는 유대인, 유대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둔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소망이나 믿음의 대상이라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1:13에서 두 번째로 사용된 in him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You, dot, dot, dot, believe in him.

그리스도는 구원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뉘앙스는 구원하는 믿음의 수단 또는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또한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대상입니다. 사람은 그를 믿습니다. 사도가 우리 유대인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저 그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서 in him의 첫 번째 사용은 영역, 도메인, 왕국을 보여주기 위한 위치격의 비유적 사용입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인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역에 영구히 포함시키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그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그것을 소유할 때까지 우리의 유업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430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셨습니다. 여기 바울의 봉인 교리가 다시 있습니다. 종종 무시되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19~22, 에베소서 1:13, 14, 에베소서 4:30을 합치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는 인봉하는 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인봉하는 자입니다.

인장을 받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인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봉인자이고, 신자들은 봉인됩니다. 봉인이란 무엇입니까? 봉인은 성령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봉인은 신격의 한 분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도 진리의 질서, 곧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를 믿었을 때, 그 안에서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이제 그는 오순절에 왔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고, 그는 보증이시고, 등등입니다.

인봉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영을 소유권의 표시로 주시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세 구절, 에베소서 1:13, 14, 에베소서 4:30, 고린도후서 1:19-22의 주된 요점은 보존 또는 안전입니다. 두 구약성경에서 대상은 보존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인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인장을 받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구속의 날을 위해 성령의 인장으로 아버지로부터 인장을 받았고, 그 인장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인장을 찍고, 믿는 자들을 인장 찍고, 성령으로 인장 찍고, 인장을 찍습니다. 맞히셨죠, 11절, 그 안에서, 죄송합니다, 13절, 그 안에서, 당신은 인장을 찍었습니다. 신성한 수동태, 아버지는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인장 찍으셨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연합은 확고합니다.

오, 저도 동의합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역에 대해 말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모든 관례의 근거에는 그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역에 두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속죄 사역을 통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심을 통해 우리를 아들의 영역에 두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합니다. 죄를 지어도 안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고, 즐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에베소서 2:4~10,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 마이.

우리의 세 원수인 세상, 육신, 마귀에 대해 성경의 어느 곳보다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말한 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는 4절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허물로 죽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보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여러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의 작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회기, 즉 승천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그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승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유일한 곳은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문맥에서 두 번,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1절과 5절). 우리는 살아나야 했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5절.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재결합함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피터 오브라이언은 에베소서 2:4~10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진리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독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새 생명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받은 새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와 연합할 때만 죽음이 정복되고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은혜의 전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5절의 마지막에 덧붙여 말합니다. 알아차리셨나요? 여러분이 허물로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ESV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단어를 대시로 올바르게 구분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은혜의 전형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사실, 책 프로젝트를 위해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달 동안 공부하는 것은 정확히 옳습니다. 성경적으로 주권적 은혜의 가장 극단적인 실증은 시대가 끝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오, 세상에. 그리고 여기서, 죽은 자를 살아있는 동안 영적으로 일으키고, 그들을 영적 죽음에서 거듭남으로 영적 생명으로 옮기는 것도 역시 은혜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적 죽음을 살아있게 하시는 것을 은혜의 전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는 5절의 마지막에 이것을 따로 삽입합니다. 은혜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함께 일으키셨다고 반복한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그와 함께 앉히셨다고 덧붙입니다-6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본 의미, 즉 위치를 말하는 위치적 의미로 사용되며, 그리스도의 영역을 말하는 데 은유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동사가 이미 이 아이디어를 표현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복은 인간 언어의 정상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스스로를 반복합니다.

강조하기 위해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대부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중의 권세의 왕자와 그의 악령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공유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너무나 중요해서 생명을 주고, 역동적이며, 깨질 수 없어서 마치 우리가 그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Frank Thielman이 잘 설명했습니다. 인용문, 세 동사, 함께 살어나게 하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다에 대한 가장 특이한 요소는 과거형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적 지위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이미 그와 함께 부활했으며, 심지어 이미

하늘에 그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들의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일어났습니다.

콜로새서 3:1을 비교하세요. 인용문 닫기. 프랭크 티엘먼의 에베소서
대한 좋은 해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앉으신 그리스도와 합하여 권세와 약한 권세에 대한 그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7은 다가올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은혜와 친절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보여 주시려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언가의 인식이나 계시를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은 현실이지만, 다가올 시대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보일 것입니다."

오브라이언은 사도가 새 창조에 대해 말할 때 창조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인용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그의 작품입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10절, 새 창조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만 온전히 드러나지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권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지금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익숙한 구절은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버지는 새 창조를 계획하셨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즉 그와 그의 구원 사역을 통해 실현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에베소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놀라운 교리에 대한 증거를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피터슨 박사가 성령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4, 바울,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기초입니다.